

광주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운영 개선 됐으면”

강기정 시장 “부처건의”...골목상권 현장지원단 간담회 골목형상점 568곳 석달새 349곳 늘어...온누리기맹점도

광주시가 집계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 지정에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온라인 소비 확산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7월 골목형상점 지정, 현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자치구별 4~10명으로 구성돼 골목형상점 지정, 온누리상품권 기맹 지원,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 안내 등 행정업무를 전담위로 지원하고 있다.

이후 3개월 새 349곳이 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10월 현재 568곳으로

확대됐다.

온누리상품권 기맹점도 협약 당시 1만 3025곳에서 10월 2만4872곳으로, 1만 1847곳 증가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전남 대인시장 상인교육관에서 강기정 시장과 현장지원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장예로를 청취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현장지원단 측은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아 기맹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 차원의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등록시스템이 불안정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교환이 되는 시증은행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온누리상품권 운영개선과 시스템 안정화 등 보완사항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골목상권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지원단의 활동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더운 여름에도 애쓰 지원단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골목형상점 지정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현장지원단 운영,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공공기관과의 상생 활동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강기정 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동구 대인시장 상인교육관에서 골목상권 지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 기여 ‘최우수’

3회 연속...중증응급환자 수용·분담·진료 증감률 전국 최고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진행한 보건복지부의 ‘2025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에서 3회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평가는 지난 6~8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중증응급환자 수용 증감률과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증감률과 전원 비율 증

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전남대병원 중증응급환자 수용 증감률은 275.1%로 전년 대비 85.3% 증가했다.

이는 전국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수용 증감률 (157.4%)보다 무려 117.7%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은 지역 중증응



급환자 수용 분담률도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증감률도 전국 평균 (178.4%)보다 141.6% 높은 320%를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계 기여도 평가에서 3회 연속 S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전국 최고의 응급의료 중심 기관임을 입증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번 3회 연속 최고등급 획득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료진의 숭고한 헌신과 사명감의 결과”며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은 호남권역 최후의 의료 방어선으로서 단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도 포기하지 않는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중앙회 감사패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이 14일 은빛마루 광산노인회관 개관식에서 대한노인회중앙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김명수 의장은 노인회관과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등 노인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했다. 또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김 의장은 광산구의회에서 5·6·9대를 지난 3선 의원으로,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광주시 자치구의장협의회 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선배 시민을 위해 당연하게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감사패를 전달해준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ijh4415@gwangnam.co.kr



광주인재교육원은 제35기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60명이 14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외래식물 제거 및 생물학적 방제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시인재교육원, 무등산 외래식물 제거 봉사 핵심리더교육생 60명 참여...원호사지구서 자생식물 식재도

광주인재교육원은 제35기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60명이 14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외래식물 제거 및 생물학적 방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호사지구에서 환경부 지정 외래 생태계 교란식물인 애기수영, 돼지풀 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생식물을 심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육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공직자로서 시민 봉사정신을 다스릴 수 있었다”며 “무등산 국립공원이 탐방 시민들과 건강한 자연생태가 상호 공존하는 건강한 국립공원이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배 시 인재교육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교육생들에게 헌신과 봉사의 공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공직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핵심리더과정은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과 실천 역량을 겸비한 중추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광주시·자치구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6개월 장기 리더십 교육과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남구,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 ‘호우’

히어로 이동 복지상담소·희망복지 다잇소 등 운영

광주 남구의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히어로 복지관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히어로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동네를 순회하면서 저소득층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 다양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사업이다.

남구는 지난 4월에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양자종합사회복지관, 인애종합사회복지관 3곳과 손잡고, 통합사업으로 희망복지 다잇소를 비롯해 히어로 이동복지상담소와 청년따순주먹밥집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복지 다잇소는 히어로 복지관이 출법한 지난 4~9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월산5동과 사직동, 대촌동 등 12개동을 방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돌



봄 이웃에게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육구 조사와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히어로 이동복지상담소도 주민들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특히 히어로 복지관은 접근성 문제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나주보건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캠페인

‘세계 정신건강의 날’ 맞아 시민과 함께 마음건강 실천

나주시는 최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2025 나주영산강축제’ 행사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행사장 내 거리 행진을 통해 정신건강의 날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도왔다.

홍보 배너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책자와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다.

검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QR코드만으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



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기검진을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전문의 상담도 연계할 수 있다.

강용근 나주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캠페인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동구, 직장운동경기부 복싱단 격려금 전달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14일 접견실에서 동구 직장운동경기부 복싱단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격려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광산구,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장관상 수상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3일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위원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사)지방자치발전연구소 주관하는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양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



광주 광산경찰 청단지구대는 최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미산초등학교에서 ‘안전한등하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청단지구대, 등하굣길 안전 환경 조성

광주 광산경찰청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광산경찰청 청단지구대는 최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미산초등학교에서 ‘안전한등하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아동 약취·유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진행된 캠페인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약취·유인 예방 교육과 안전수칙을 전달, 유사 범죄를 사전에 막고자 노력했다.

청단지구대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며 “아이들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ijh4415@gwangnam.co.kr